

광양항 개항 10년

성과와 과제

물동량 매년 12% 증가… 국제항만 성장

年 548만 TEU 처리…2020년까지 25선석 운영

배후단지 개발 통해 '동북아 허브'로 자리잡아야

개항 10년을 맞은 광양항이 연평균 12% 이상의 물동량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대형 국제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오는 17일로 개항 10년이 되는 광양항은 지난 1987년 개발에 착수해 1998년 개장했으며, 현재 16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항만으로 발돋움했다.

광양항은 올해 5선석을 추가 착공하고 배후단지를 확장하는 등 국제항

만에 걸맞은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항후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항만과의 경쟁 등 동북아 허브로서 자리잡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998년 4선석으로 출발한 광양항은 현재 총 16선석을 갖춰 연간 548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항만이 됐다.

물동량도 1998년에 3만3천768 TEU에서 지난 해에는 172만 TEU를

처리해 10년 만에 약 50배 정도 늘었고,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물동량 신장률이 12.4%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 처리한 물동량은 91만 5천 TEU이고 올해 전체로는 195만 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보다 물동량이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올 하반기에 5선석을 추가 착공하고, 2020년까지 25선석을 갖출 계획이다.

물동량 창출의 원동력이 될 배후단지 개발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광양항의 국제 물류 네트워크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004년 착공한 동

측 배후단지(194만m²)가 올해 말 완공 예정인데 이미 국내외 25개업체에 100% 분양이 이뤄진 상태다. 서측 배후단지(194만m²)도 올 11월 착공해 2012년 완공될 예정이며, 배후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고용창출과 함께 100만 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과 같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에 따른 부두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배후단지 개발 및 주변 공항과의 연계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암 걸리면 죽음보다 치료비 걱정

국립암센터 국민 인식조사

국민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암에 걸릴 경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값비싼 치료비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암센터가 올해 초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신뢰수준 95% ±3.04%)에서 드러난 결과다.

15일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발생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3명중 2명꼴인 67.5%가 '치료비 부담'이라고 답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응답이 12.2%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뒤를 '의료기관에 대한 두려움(5.8%)',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부재(5.7%)', '경제활동 불능(4.5%)' 등이 따랐다. /연합뉴스

가정용 도시가스비 30% 인상

정부, 연내 산업용 50% 등 3차례 나눠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산업용은 50%, 가정용은 30% 올리되 시기는 3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유후 지식경제부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가스요금은 3차례 정도로 나눠서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번에 50%를 올리면 부담이 크니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불가능한 요인을 고려해 용도별로 인상률을 차등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에 각각 산업용은 10~20%, 가정용은 9%대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광주 도시철도 화순 연장 용역 착수

광주시·화순군 협약 체결

광주~화순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화순군과 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 도시철도 추진에 따른 용역을 공동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지역체계가 용역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형식으로 올해 안에 광주 소재~화순간 도시철도 건설을

도매요금의 인상요인을 점검한 결과 50%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했으며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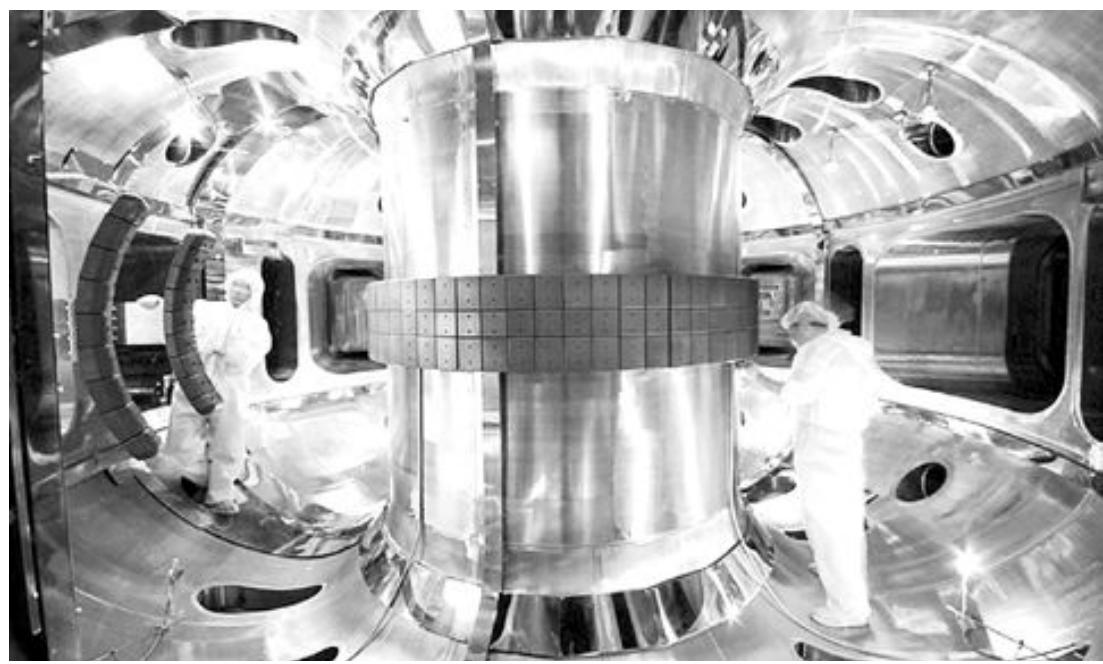
다만 산업용 요금은 원가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해 50% 올리지만 전국 1천 150만가구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요금은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30% 미만으로 제한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산업용은 10~20%, 가정용은 9%대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된다. 광주 도시철도는 타당성 용역을 끝낸 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1년께 착공 예정이다.

광주도시철도의 화순연장은 지난 4월7일 전완준 화순군수와 박광태 광주시장이 만나 "두 지역간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부터 추진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한국형 인공태양 불꽃 밝혔다



15일 첫 불꽃을 밝히는 데 성공한 한국형 핵융합로 'K-STAR'의 내부.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일으켜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 핵융합로는 지난 1995년부터 모두 3천9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완공됐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40년까지 K-STAR를 이용한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면, 국내 전기 소비량의 40%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나무 첫 재배지 하동 아니다”

구례군, 한국기록원 인증서 발급에 반발

한국기록원이 경남 하동군을 국내 최초의 차나무 재배지로 인증한데 대해 구례군이 반발하고 있다.

구례군과 하동군의 차 시세지 논란은 유일한 공식기록인 삼국사기 문구의 해석에서 비롯됐다.

삼국사기 흥덕왕 편에는 '사신 대법(大廉)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차 종자를 가지고 오니 왕이 지리산(地理山)에 심게 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때문에 정확히 지리산 어디에 차를 재배했는지를 물어온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왕명으로 차 종자를 심었다는 것은 국왕이 직접 기념식수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당시 불교의 중심지였던 화엄사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철탑산중에 묻혀 있던 화개 근교에 심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동군은 지난 5월 30일 한국기록원을 방문, 경남도 지정기념물 264호인 화개면 '천년 녹차나무'와 '차 시세지'가 국내 최초임을 검증해 줄 것을 의뢰해 7월 1일자로 국내 최고(最古) 차나무와 최초 차 재배지라는 인증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국가기록원의 인증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록원 측이 충분한 현지 조사 없이 하동군이 제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급한 만큼 인증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구례군의 주장이다. /동부취재본부 = 김동호 dhkim@

F1·엑스포 부지에 한옥 테마파크

전남도 한옥호텔 등 조성

전남도가 한옥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인근과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내에 한옥 테마파크와 한옥단지를 조성한다.

전남도는 2010년 F1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양 행사와 관련된 각종 시설에 한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영암군 삼호읍 F1 경주장 인근에 한옥 호텔(4천500㎡)과 한옥 선수촌(100동), 한옥 테마공원(3만m²) 등을 집중화시킬 동시에 모든 부대시설에 한옥 컨셉을 가미해 독창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 53만6천m² 부지에 들어설 박람회 종사자 숙소인 옥타운(1천250가구)의 3개 단지중 1개를 한옥으로 조성한다. 이 한옥단지는 13만5천m² 부지에 551동 규모로 건립,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불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전남도가 외형 만을 한옥 형태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앙 행사를 기간 동안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한옥의 멋스러움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정부에 F1 경주장 인근 한옥테마파크와 엑스포장 내 한옥단지 조성을 위해 각각 300억원, 2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7월 22일(화)

▲정다운 우리산악회 차리산 산봉봉 뱀사루 계곡 산행 7월 22일(화) 7시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3-5024

▲광주한길산악회 대구수봉산 애월봉 산행 7월 20일(일) 7시45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22-3253, 010-7619 0559

▲나사모산우회 수곡국·삼봉봉(지리산) 7월 20일(일) 7시45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1-6424 1804

▲광주한길산악회 차리산 산봉봉 낙지봉(지리산) 7월 20일(일) 7시5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3-5415

▲광주우리산악회 속리산 차북봉(지리산) 7월 20일(일) 7시5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2-3709

▲영주산악회 7월 20일(일) 7시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8-2208

7월 23일(수)

▲광주일주만화회 중부화천 산봉봉(지리산) 7월 23일(수) 7시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4-5145

▲광주우리산악회 차북봉(지리산) 7월 23일(수) 7시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2-3709

▲빛고을블랙아트 산악회 차북봉(지리산) 7월 23일(수) 7시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03-2208

7월 24일(목)

▲광주 우리산악회 차리산 천선기곡 7월 24일(목) 7시 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15-2279

7월 25일(금)

▲광주 우리산악회 차리산 천선기곡 7월 25일(금) 7시 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15-2498

7월 30일(수)

▲고구려 산악회 금강산 7월 30일(수)~8월 1일(금) 2박 3일 구 해태마드 출발 T.011-603-7987

7월 31일(목)

▲광주 한국산악회 민양 구마산 7월 31일(목) 7시 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15-2279

8월 3일(일)

▲고고산악회 흑산도 가거도 화물선 8월 3일(일) 7시 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20-2002

8월 7일(목)

▲기고려산악회 흑산도 가거도 화물선 8월 7일(목)~8월 8일(금) 2박 1일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20-2002

8월 10일(일)

▲나사모산우회 금강산 8월 10일(일) 7시 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29 2678, 010-2613 9566

8월 11일(월)

▲광주 우리산악회 경복 청주 8월 11일(월) 7시 30분 구 해태마드 출발→한우재

T.011-643-1859

8월 12일(